



광남일보



주간 제 803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음력 1월 17일)

현역 단체장·광역의원 출마채비...행·의정 공백 우려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예비후보 등록 초읽기 시·도의원도 잇단 사퇴...견제·감시 약화 가능성

6·3지방선거 D-90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이나 사퇴가 이어지면서 행·의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닦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현역 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공백으로 인해 통합과 관련한 현안들의 처리가 자칫 미뤄지게 된다면 초매가시기가 출범 전부터 뼈저리게 다가올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2·8·19면

4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5일까지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의정활동 보고와 경강·정책 신문광고가 제한된다. 때문에 현역 입지자들은 이날에 맞춰 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고 있다. 정당 또한 이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예비경선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을 잇달아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후보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

도지사를 비롯해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추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을 확정, 선거전에 돌입할 채비를 갖췄다.

특히 지난달 2일 민형배 의원을 시작으로 이병훈 수석부위원장, 이개호·정준호·신정훈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통과 협동보고회를 가진 두 광역단체장이 조만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강 시장과 김 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지만 '전·현직 국회의원 6명에 비해 선거법상 제약이 많다'는 현실적·정무적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면 직을 유지되지만 직무는 정지된다는 점이다. 즉, 시장과 도정의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닦아야 할 현역 단체장의 사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행정체제 통합으로 인한 시스템 개편 등 산재한 현안을 이끌어갈 수장의 부재가 큰



“봄이 왔어요”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 활짝 핀 매화꽃 사이를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0년간 분리됐던 광역자치단체를 매머드급 지방정부로 연속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의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광역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할 통합의회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기임에도 시·도의회의원들의 사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광주시의회는 이미 의장단 구성에 균열이 갔다.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정다은 의원이 지난달 20일 사퇴하면서 시의회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기의원도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과 함께 사퇴를 했다. 북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인 신수정 시의회의장 역시 사퇴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의회 운영의 핵심인 의장, 운영위원장, 원내

대표가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의회 운영에 구멍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날 서동욱 의원이 순천시청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으며, 전경선 의원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표를 던지고 직을 내려놨다.

김태균 도의회의장과 이광일·이철 부의장도 단체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라 의장단의 공백이 예상되는 데다 다수의 의원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의정 공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선 준비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이 사실상 필수로 작용하면서 법정 시한보다 앞선 사퇴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현역 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출사퇴로 행·의정의 공백은 사실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20~21일 유력

‘5명 압축’ 25일부터 3개 권역별 연설회...29일 배심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 나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 관리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예비경선을 실시한 후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순회 투표를 통해 본격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

지는 못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8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5명을 가리는 예비경선을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예비경선 방식은 관리당원 100% 여론조사가 유력해 보인다.

5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본격선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치를 계획이다. 개 권역을 순회하며 합동연설회를 연 후 곧바로 해당 권역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3개 권역 가운데 한 곳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면, 연설회가 열린 날부터 사흘 동안 투표를 시행하고, 이튿날은 제2권역에서, 사흘째는 제3권역에서 합동연설회와 투표를 연달아 여는 방식이다.

3개 권역은 전남서부권, 전남동부권, 광주권으로 나눌 것이 확실시되고, 순회 투표 지역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시민공천배심원의 투표는 권역별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코스피 폭락 5000선 '위태'
<p>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김봉준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p> <p>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026. 3.</p> <p>법무법인 이우스</p> <p>대표변호사 김정호, 전일호 고문 오세욱 변호사 강성두, 이병준, 장은백, 김아름, 서영욱, 이인애, 김주완</p> <p>■ 업무개시 : 2026. 3. 9(월) ■ 개업소연 : 2026. 3. 26(목)</p>	<p>저는 이번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p> <p>제가 지장장, 부장검사, 검사, 법화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써 쌓아온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p> <p>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p> <p>◇ 주요 학력 및 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산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90학번)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2001년), 사법연수원 337기 ■ 진주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장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검, 부산지검,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검사 ■ 광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p>대표변호사 김봉준 올림</p> <p>■ 개업주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 ■ 대표전화 : 062) 233-1600 팩스 062) 225-7800</p>	<p>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이를 동안 1000p 넘게 빠지며 4일 51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p> <p>▶관련기사 3·4·14면</p> <p>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p(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하락폭은 역대 가장 컸다. 직전 역대 1위는 '9.11 테러' 발생 다음날인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2.02%다.</p> <p>낙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 코스피는 중등 긴장 고조에 452.22p 내려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으나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p> <p>임재용 기자</p>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1:3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까지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후원 시에도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건라노

후원(예정) : 나주시, 나주시 임업유계지역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직업자사 광주지부, 전라남도자연생태센터